

서울시 쓰레기통 시민참여형 스마트 관리

홍보수단은 뉴스 이외에 모르겠음. 다른 매체를 통한 광고가 없었던 것 같음.

2021년 9월 경부터 마포구에서 시범운영 1년 간 시작

거리 쓰레기통이 가득 찼을 때 바로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하는 시범 사업

이 같은 쓰레기통을 마포구에 243개 설치

실효성이 있을 시 서울 소재 다른 구에도 점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1년 후 mbn에서 취재 결과

동교동과 서교동 그리고 합정동의 쓰레기통까지 표식이 지워졌거나 흐려져 스마트폰으로 인식이 안됨

구청은 표식이 사라진 사실을 몰랐음

지난 1년간 qr코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5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91804>

제로서울 챌린지

시민참여 온라인 이벤트로 22년 6월말에서 7월말까지 단기간 시행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진을 찍어 개인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하는 활동

참여자 대상 추첨을 통하여 400여 명에게 경품을 지급

해당 기간 동안 5만9천명이 참여하여 성료

23년에도 동기간 시행한 것으로 보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공식인스타그램이 존재

이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서울시 쓰레기 다이어트 참여단

21년, 22년 각각 하반기에 시민참여형식으로 운영된 쓰레기 줄이기 사업

두 해 모두 서울시가 주최이긴 했으나 협력 단체는 달랐던 것 같음

21년의 경우 100가구를 모집하여 시행하였음

22년의 경우 500가구를 모집하여 시행하였고 이외에도 용산구 등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을 또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23년 상반기엔 성북구에서 또 100세대를 모집하여 시행하였음

하지만 이 이후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음.

홍보수단은 서울시 블로그 혹은 기사 이외에는 모르겠음